

광염교회를 움.직.이.는. 다섯가지 마음

모든 교회는 무엇인가에 의해 움직인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인도하는 힘과, 조절하는 과정, 그리고 이끌어 가는 확신이 작용한다. 물론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알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들은 분명히 존재하며, 교회 내 사역의 모든 면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한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감자탕교회로 잘 알려진 서울 상계동에 소재한 서울광염교회(담임: 조현삼 목사, 이하 광염교회)는 사무직원이나 관리직원이 한 명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낮 예배 출석 인원이 1천 7백 명이 넘는다. 재해가 일어난 곳이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기독교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 내에서 전도와 구제에 있어 가장 활동이 왕성하기로 소문 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직원 한 명 없는 교회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광염교회가 마음(spirit)으로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기관이 아니라 운동체이다.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방법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이는 유기체인 것이다. 따라서 광염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염교회를 움직이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조현삼 목사

마음 1.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라

광염교회 본당은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강대상 위 천정 부분이 다른 천정에 비해 깊숙이 파여져 높게 만들어진 것이다. 5층짜리 상가 건물의 3층에 자리한 광염교회 본당은 웬만한 사람이 서서 손을 올리면 닿을 정도로 천정이 낮아, 설교를 마치고 축도를 하려고 하면 천정에 손이 닿는다. 그래서 조현삼 목사는 축도를 할 때 늘 손을 위가 아니라 앞으로 내민다. 그런데 외부 강사라도 모실 경우, 이런 교회의 사정을 몰라 손을 위로 올려 천정이 닿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일부러 강대상 부분의 천정을 파놓은 것이다.

사실 광염교회의 본당은 1천 7백여 명에 이르는 주일 낮 예배 출석 인원수를 감안할 때, 턱없이 좁은 편이다. 70평 남짓 되는 본당은 한번에 3백여 명 정도가 들어차면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가 없다. 예배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으면 자리 찾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깨를 딱딱따닥 맞대고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 때문에 주일 낮 예배도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6부로 나누어 드리고 있으며, 주일이면 본당으로 올라가기 위해 일렬로 줄을 지은 성도들로 인해 진풍경이 펼쳐진다. 예배를 위해 본당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10여 분의 시간은 족히 기다려야 하지만, 광염교회 성도들은 이제 서서 기다리는 데 익숙해져 있다고 한다.

공간이 너무 협소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조현삼 목사의 대답은 예상외다. 비록 절대적인 공간은 좁은 것이 사실일지 모르지만, 인구 밀도를 따진다면 다른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 교회에 비해 결코 좁은 편이 아니라는 말이다. 진짜 불편할 정도로 좁았다면, 사람들이 오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조 목사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광염교회는 새가족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올해만 해도, 상반기에 등록된 새가족이 6백여 명, 매주 20명에서 25명꼴로 새가족이 등록한 셈이다.

조 목사가 개척할 당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땅은 샀느냐?”였다.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조 목사는 “그냥 어쩌다 보니, 아직 못 샀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

“저는 콩나물과 사람은 밀 빠진 독에서 자란다고 늘 강조합니다. 콩나물을 키우듯이, 사람도 밀 빠진 독에 물을 붓고 또 부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밀 빠진 독에서 콩나물이 자라듯이 사람도 변하고 자라 가게 됩니다.”





나 조 목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건물보다 사람인데'라는 생각이 있었고, 개척 초기부터 사람을 세우는 데 온통 관심과 열정을 쏟았다. 사실 개척 교회에서는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 문제가 무엇보다 시급하고, 교회의 성장이나 부흥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못지않게 하드웨어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하지만 비좁은 상가 건물에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광염교회에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여들고 있다. 결국 조 목사의 바람대로 된 셈이다. 광염교회는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사람을 세우는 것을 더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이다.

조 목사가 '한 사람 철학'을 갖게 된 것은 1992년에 15기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를 참석한 후부터다. 조 목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옥한흠 목사님의 '한 사람'에 대한 철학은 저의 목회인생을 바뀔농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세미나를 통해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 목회의 본질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자훈련이 옥 목사님 개인이 만들어 낸 이론이라거나, 한때 유행하는 목회의 방법론이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결코 제자훈련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세미나를 통해 '한 사람' 철학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확신했기에 사람을 세우는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 목사의 확신은 개척 후 성지순례를 하면서 유럽의 텅 빈 교회들을 목격한 이후 더욱 굳어지게 되었다. 유구한 역사와 아름다운 건물을 자랑하던 성당과 교회가 이제는 한낱 관광 코스의 하나로 전락한 것을 보고, 조 목사는 더욱 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굳혔던 것이다. 이러한 결심은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광염교회를 움직여 오는 첫 번째 마음이 되었다.

다 음 2. 사람은 밭 빠진 독에서 자란다

세미나를 수료한 다른 목회자들처럼, 조 목사 역시 열정은 뜨거웠지만, 열정만큼 제자훈련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조 목사는 당시의 실패담 하나를 전한다. 첫 남제자반이었는데,

처음에는 다들 열심을 갖고 훈련에 임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훈련이 힘들다며 과제물을 줄여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게 됐다. 워낙 온유한 성격 탓도 있지만, 직장생활하면서 훈련을 받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대견스럽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여, 조 목사는 훈련생들의 요청대로 훈련 강도를 낮춰주었다.

큐티나 독서과제물이 많다고 하면 줄여주고, 지각이나 결석도 눈감아주곤 했다. 그런데 훈련의 강도를 낮추면 사람들이 끝까지 훈련을 마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오히려 그 반대였다. 세 명만이 마지막까지 남았고, 나머지는 중간에 다들 그만두게 되었다. 당시 조 목사 스스로도 얼마나 실망이 컸는지, 수료한 세 사람에게 수료증조차 주지 않은 채 졸업을 시켰다.

이러한 크고 작은 시행착오 속에서 조 목사는 사람을 세워가는 작업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조 목사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콩나물 기르는 것'에 비유하기를 좋아한다.

"사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5년, 10년이 지나도 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작업은 그래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콩나물과 사람은 밭 빠진 독에서 자란다고 늘 강조합니다. 콩나물을 키우듯이, 사람도 밭 빠진 독에 물을 붓고 또 부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밭 빠진 독에서 콩나물이 자라듯이 사람도 변하고 자라 가게 됩니다. 이는 길지는 않지만 저의 목회를 통해 직접 체험한 것이며, 확신하는 바입니다"라고 조 목사는 말한다.

그래서인지 광염교회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매년 광염교회는 적잖은 비용을 투자하여 청년들을 해외로 단기 선교활동을 보내고 있다. 2001년에는 타이완, 2002년에는 캄보디아, 2003년에는 인도와 몽골을 다녀왔고, 올

여름에도 티키와 카자흐스탄을 다녀왔다.

그렇다면 해마다 이렇게 해외로 청년들을 보낸 결과,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을까? 이에 대해 조 목사는 교회가 많은 비용과 시간, 에너지를 투자하여, 청년들을 해외로 보내지만, 선교여행 며칠 다녀왔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몰라보게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염교회는 매년 청년들이 선교여행을 갈 때면 비용의 절반을 교회가 지원하며 후원을 아끼지 않는다. 왜일까? 그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마음이, 그리고 '사람은 밭 빠진 독에서 자란다'는 마음이 교회를 움직이는 또 하나의 힘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다 음 3. 사용하지 말고 사랑하라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광염교회의 문화 뒤에는, 조 목사의 사람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이 있다. 조 목사는 늘 사람은 '사용'해야 할 '도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한다. 즉 성도들이나 동역자들을 교회의 성장을 위한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훈련생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그들이 훈련을 받고 나면 평신도 지도자로서 세워져 사역할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지도자 후보생이기 이전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몇 해 전 광염교회는 광염교회 1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지원하여 당시 광염교회 부교역자였던 김세열 목사에게 '10주년 기념교회'를 개척하게 했다. 새로이 개척해 가는 김세열 목사에 대한 당부의 글에서도 이러한 조 목사의 사람에 대한 관점이 잘 드러난다.

그는 "사랑하는 김세열 목사님. 벌써 10년이네요. 목사님과 함께했던 날들이 말입니다. 처음엔 김세열 성도라 부르다가 김세열 전도사, 김세열 강도사, 김세열 목사. 그 사이 여러 이름으로 목사님을 불렀더군요. 사랑하는 김 목사님. 담임목사가 이제 담임목사가 된 목사님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세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세요. 성도들이 갖고 있는 것

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자체를 사랑하세요."

처음으로 동역한 부교역자이자, 10년을 함께 땀 지기에게,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 떠나는 동료 목회자에게 그가 당부한 말은, 사람 자체를 사랑할 줄 아는 목회자가 되라는 것이다. 즉 사람을 사용해야 할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관점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목사의 말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그의 사역 속에서 이러한 관점이 자연스레 배어나오고 있다는 점이고, 교회 전체가 이런 마음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랑의 집' 3호라고 할 수 있다. '사랑의 집'은 광염교회가 불우한 이웃을 위해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사역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세 번째 집은 교회 성도가 아닌, 오히려 교회에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준 불신자 C씨를 위해 마련되었다.

C씨는 몇 년 전 교회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돌보고 있을 때 경찰에 신고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쫓겨나게 한 장본인이었다. 당시 C씨는 본인의 실업의 원인을 외국인 근로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술김에 신고한 것이었다. 비록 취중에 한 일 이었고, 나중에 취소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미 었질러진 물이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교회의 사역에도 많은 차질이 생겼다.

그런데 그가 IMF 때 직장을 잃고, 아내와도 헤어지고, 녹내장까지 걸려 앞을 볼 수 없어 생계까지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와 함께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할 만큼 형편이 어려웠고, 집도 지하에다 밀린 월세 때문에 곧 길거리로 나앉을 상황이었다.

그런 C씨를 가까이서 지켜보던 광염교회 집사 한 분이 너무 불쌍하다며 교회에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구제위원회에서는 논의를 거친 끝에 C씨를 용서하고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선물해주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고, 결국 그는 '사랑의 집' 3호의 주인공이 되었다. 조 목사조차 당시 인간적인 갈등

“ 광염교회를 움.직.이.는.

다섯가지 다 음 ”

제자훈련을 마치고 사역훈련에 들어가면, 교회 내 사역을 위한 역량을 갖추도록 훈련할 뿐만 아니라, 각자가 속한 세상 속에서 각자의 사역의 장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활동해 갈지에 대해서도 찾을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을 느꼈을 정도로 교회에 큰 상처를 준 C씨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기란 분명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사람을 사용해야 할 도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마음이 움직이는 교회였기에 이러한 일도 가능했던 것이다.

다음 4. 교회에서 힘 얻어 세상에서 사역하라

광염교회는 목적 헌금이나 찬조금이 없기로도 유명하다. 목적헌금은 교회가 설립된 후 지금까지 두 번 실행한 것이 전부였다. 개척 때 빌렸던 예배당 보증금 중 1천만 원을 갚을 때와 예배당을 5층에서 3층으로 옮길 때였다. 그리고 체육대회, 수련회, 바자회, 특별행사 등 교회의 각종 행사 때마다 기부금의 형식으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찬조금 문화 자체가 광염교회에는 없다. 그러나 목적 헌금이나 찬조금이 없는 것이 단순히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거기에는 더 큰 이유가 있다.

조 목사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저는 성도들에게 십일조만 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성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진정한 사역의 현장은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사역하려면 사역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교회에 십일조를 비롯한, 이런저런 헌금을 다 내려면 생활하기조차 뻘뻘할 때가 많습니다. 생활하기에도 부족한데, 어떻게 사역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겠습니까?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속에서 각자가 사역하기 위한 사역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사역의 현장들을 발견하고 이를 위해 각자가 사역비를 투자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척들이 모였을 때나,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에서, 불신자와의 만남에서 사역비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현장은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도 포함한다는 조 목사의 생각은 제자훈련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 특히 제자훈련을 마치고 사역훈련에 들어가면, 교회 내 사역을 위한 역량을 갖추도록 훈련할 뿐만 아니라, 각자가 속한 세상 속에서 각자의 사역의 장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활동해 갈지에 대해서도 찾을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즉 훈련의 초점이 교회 내 사역뿐 아니라, 세상에서의 사역,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교회 내 사역의 현장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의 장은 한없이 넓어진다. 그

만큼 세상에는 훈련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곳이 많은 것이다. 만일 훈련받은 사람은 많고 사역의 장이 없어 고민이라는 교회가 있다면, 조 목사가 말하는 사역의 장은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점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조 목사는 나아가 “저는 교회에서 힘을 받고 세상에서 힘쓰고 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합니다. 만약 교회 일로 인해 개인이 지치고 힘이 든다면, 차라리 그 일을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할 곳은 세상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일하기 위해 에너지를 충전받는 곳이지, 에너지를 쏟는 곳이 아닙니다”라고 말한다. 그 때문일까? 광염교회는 그곳이 어디든지 세상이 교회를 원하는 곳을 찾아다니기에 바쁘고, 그리고 늘 그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교회가 되었다. 광염교회가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회에서 힘을 얻어 세상에서 사역하자는 마음 때문이다.

다음 5. 나중이 아니라 처음부터 실천하라

조 목사가 광염교회를 세우면서 제시한 10대 비전은 모두 사람을 세우는 일과 연관이 있다. “전 교인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성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사회 최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회” 등의 비전을 비롯해 대부분이 사람을 세우는 것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런데 이 10대 비전 중에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구제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전도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라는 비전도 있다. 개척을 막 시작한 교회의 비전치고는 거창하기까지 한 비전이다. 물론 누구나 이러한 비전을 수립할 수는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광염교회는 처음부터 그것을 ‘실천’ 해왔다는 점이다.

광염교회의 재정 운영에 있어서 독특한 점 중의 하나는 헌

금의 30% 이상을 구제, 선교, 장학금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 원칙은 처음 개척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져 왔고, 지금은 교회 예산의 50% 이상이 구제, 선교, 장학금의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다. 물론 개척 초기에는 운영 가능한 예산 자체가 적기 때문에, 광염교회가 이러한 원칙에 의해 운영되어져 왔다는 사실은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꾸준히 지켜지면서, 알게 모르게 지역 사회에서 광염교회는 좋은 이미지를 구축해 가고 있다. 심지어 지금은 예수 믿지 않는 슈퍼마켓 주인아저씨조차 교회



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광염교회에 나가라고 권할 정도이다.

이에 대해 조 목사는 “요즘 저희 교회가 구제사업으로 세간의 많은 주목을 끌게 되면서, 광염교회를 모델로 하여 구제사역을 배우러 오는 교회가 종종 있습니다. 구제에 관심을 갖는 교회가 늘어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구제를 교회성장이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제의 근거는 성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제는 교회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교회의 규모에 맞게 바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사실 광염교회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최근 3, 4년 사이의 일이다. 교회성장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2000년까지 출석 교인수가 300~400명 선이었다가, 최근 3, 4년 사이에 5, 6배가 증가했다. 만약 지금의 광염교회의 모습만을 보고, 개척 초기부터 지켜져 온 광염교회의 원칙을 보지 못한다면, 결코 광염교회를 움직이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이자 운동체이다. 만약 어려서부터 실천하고 훈련받지 못한 것이라면, 성장해서도 결코 실천할 수 없다. 처음부터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실천해 갔기 때문에, 오늘의 광염교회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조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사실 개척 초기에는 교회 예산의 30%를 구제, 선교, 장학금으로 쓴다는 원칙을 세워 실천했지만, 예산 자체가 적어 할 수 있는 일들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형편에서도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훈련과 예배였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과 열정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만큼 더 열심히 그 일들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광염교회가 구제사역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광염교회는 예배, 훈련, 교제, 구제, 선교가 균형을 이룬 교회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진단이며, 그 중심에는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균형과 중심을 광염교회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나중에’가 아니라 ‘처음부터’ 실천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분명 광염교회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교회임에 틀림이 없고,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해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광염교회를 움직이는 마음이 무엇인지 안다면, 광염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해 갈지에 대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사람을 세워 가는 교회, 사람을 세우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교회,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교회,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더 열심히 일하는 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교회, 그 외형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교회를 움직이는 지금의 마음이 그 안에 살아 있다면, 광염교회는 앞서 열거한 표현들이 가장 잘 어울리는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할 것이다.

광염교회는 교회가 방법이나 프로그램에 의해 유지되고 관리되는 조직이 아니라, 마음(spirit)에 의해 움직이는 유기체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우리는 광염교회를 통해 그들이 전개하고 있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움직이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주목해야만 한다.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목회자라면, 마음으로 움직이는 교회, 광염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목회현장을 움직이는 마음이 무엇인지,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움직이는 마음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한 번쯤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란다. 

〈양승언 전도사〉

비록 광염교회가 구제사역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광염교회는 예배, 훈련, 교제, 구제, 선교가
균형을 이룬 교회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진단이며,
그 중심에는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 있었다.



Interview _ 남양주광염교회 김세열 목사

광염의 마음 뒤에는 신뢰가 있습니다



김세열 목사

서울광염교회(이하 광염교회)의 마음(spirit)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아마도 담임목사인 조현삼 목사만큼 광염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조 목사 못지않게 광염교회의 마음을 이해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는 바로 광염교회가 1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개척한 남양주광염교회의 담임 김세열 목사이다.

김 목사는 ‘광염인’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광염교회의 초창기부터 광염교회에서 평신도로서 신앙생활을 했으며, 조 목사의 권고로 신학교에 입학했고, 그가 첫 사역을 시작한 곳도 광염교회였다. 전도사 시절부터 개척하기 전까지 한시도 광염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 한마디로 광염교회가 전부였던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은 남양주광염교회를 개척하여 또 하나의 광염교회를 세워 가고 있다.

그렇다면 김 목사가 전하는 광염의 뒷모습은 무엇일까? “저는 지금의 광염교회가 있기까지는 조 목사님에 대한 성도들의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광염교회만큼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움직이는 교회는 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몇 천만 원 되는 구제비도 전화 한 통화로 집행이 결정됩니다. 보통의 교회라면 이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몇 차례 회의를 거쳐야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조 목사님에 대한 성도들의 신뢰가 없었다면 이러한 일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성도들은 인격적으로 조 목사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조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면 전적으로 믿고 따릅니다.” 광염교회가 지금처럼 역동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배경에

는 목회자에 대한 성도들의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조 목사에게 보내는 이러한 신뢰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저는 조 목사님의 독특한 리더십 스타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조 목사님은 늘 성도들의 눈높이에 계십니다. 성도들과 함께 식당에서 줄을 서서 식사를 하고, 함께 본당을 청소할 정도로 성도들과 거리감이 없으십니다. 그저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늘 몸소 섬기려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눈높이에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조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 자연히 존경과 신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김 목사는 신뢰의 첫 번째 근거로 리더십 스타일을 꼽았다.

김 목사는 또한 신뢰의 또 다른 원천으로 조 목사의 ‘청렴한 생활’을 꼽는다. “언젠가 조 목사님께서 가난이 가져다주는 영적 파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본인은 청렴한 삶을 선택함으로써 성도들의 신뢰라는 더 값진 영적 파위를 얻었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조 목사는 1,700여 명의 교인들이 출석하는 중형 교회의 담임목사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검소하게, 아니 가난하게 생활한다. 아직까지도 그 혼한 자가용 한 대 없이 교회 승합차를 함께 타고 다닌다. 그러나 조 목사의 삶이 감동을 주는 것은 청렴한 삶 자체가 아니라, 그가 그러한 삶을 살기로 선택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광염교회가 지금처럼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 목사에 대한 성도들의 신뢰가 있었으며, 이러한 신뢰는 조 목사의 독특한 리더십 스타일과 청렴한 삶의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라는 것이 김 목사의 설명이다. 그리고 김 목사 자신도 이런 조 목사의 모습을 닮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 역시 광염의 마음을 가진 또 하나의 광염교회를 세우고자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교회성장이 주는 잠재적 도전

서울광엽교회는 현재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4년 전 500명이었던 출석 교인수가 8월 현재 세 배가 넘는 1,550명으로 증가했다. 게다가 올 상반기에만 6백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새로 등록했다. 이는 매주 약 20~25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한 것으로, 당분간 이런 성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광엽교회가 지닌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광엽교회에는 또 다른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는 규모에 상관없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직면하게 되는 잠재적 도전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광엽교회의 사례를 통해, 빠른 교회성장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도전 세 가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도전1. 평신도 지도자의 수급

교회의 빠른 성장이 가져오는 도전 중 하나는 평신도 지도자 수급의 문제이다. 현재 광엽교회에는 소그룹 지도자로 사역하고 있는 순장이 약 60~70명 정도 있다. 이는 전체 출석 교인수의 5% 정도로 매우 낮은 비율이다. 이러한 평신도 지도자의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교회 전체의 양육 구조에 무리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교회를 움직이는 마음(spirit) 자체를 유지시키는 데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교회의 건강한 성장에도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평신도 지도자의 수급은 교회성장을 고려해 조절할 필요가 있다. 광엽교회의 경우, 현재 제자반 다섯(여제자반 셋, 남제자반 둘)과 사역반 하나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1, 2년 사이에 지금 섬기고 있는 순장 수만큼의 지도자들을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광엽교회 역시 교회성장에 비례하여 훈련생을 늘리면서 평신도 지도자의 수급을 조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 데 1, 2년이라는 적잖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요에 공급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훈련생 중 일부를 훈련 기간

중이라도 지도자로 파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의할 점은 훈련 기간 중 사역을 하게 됨으로써 훈련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거나, 훈련생의 수를 늘림으로써 기초양육이 덜 된 훈련생들이 많아지는 등의 문제로 인해 훈련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훈련 과정 중 이들에 대한 지도자의 보다 세심한 배려와 더불어, 평신도 지도자에 대한 재교육을 활성화함으로 보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도전2. 소그룹을 통한 정착과 양육

빠른 교회성장이 가져오는 또 다른 도전은 소그룹을 통한 정착과 양육의 문제이다. 광엽교회의 경우, 소그룹 구성원이 평균 7, 8명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10명이 넘는 소그룹이 있을 정도로 소그룹 인원수가 많은 편이다. 이렇게 소그룹 인원수가 증가할 경우, 소그룹을 통한 양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교회 전체 소그룹의 역동성도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평신도 지도자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로, 교회가 급성장할 경우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회 내 비공식적인 양육체계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 광엽교회의 경우, 조현삼 목사의 설교를 통해 비공식적인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 목사의 설교에 대해, 부교역자들은 한결같이 적용이 강조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한다.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이것을 성경에 근거해 적용하는 것이 조 목사 설교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비록 설교가 대그룹 환경에서 이루어진 하나 그 내용이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설교가 가질 수 있는 양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소그룹 운영과 관련해서, 광엽교회가 보이는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남녀 소그룹의 참여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광엽교회는 여성 소그룹의 경우 50~60개 정도가 운영되는 반면, 남성 소그룹의 경우 5, 6개 정도만 운영되고 있다. 여성도의 경우 70% 이상이 소그룹에 참여하는 반면,

남성도의 경우 매우 낮은 비율만이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남성도의 소그룹 참여도가 낮은 것은 다른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그룹을 통한 정착과 양육이 한 사람의 신앙 성숙에 있어서 갖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의 비율이 높다는 점은 긍정적이지 못하다. 실제로 성장 속도가 빠른 교회의 경우,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의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따라서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한 꾸준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소그룹 지도자들에게 소그룹을 통한 정착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도전3. 전도 열정의 유지

전도의 열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문제 역시 빠른 교회성장이 가져오는 잠재적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광엽교회의 경우, 목회자, 시스템, 전도, 예배, 정착, 양육, 훈련, 사역, 소그룹 등 아홉 가지 영역에 대해 목회자와 평신도의 평가를 조사한 결과, 전도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게 나왔다.

물론 전도에 대한 점수가 낮은 것은 프로파일을 실시한 교회들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또한 점수 자체는 다른 교회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임을 감안할 때,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전도에 대한 문항 중 지역 사회 내에서의 교회 이미지나 전도 이벤트 등의 항목은 높은 점수를 얻은 반면, 개인이나 소그룹 전도, 전도훈련 등의 항목은 낮은 점수를 얻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는 교회가 성장 중에 있지만, 개인적인 전도의 영역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 전체를 전도에 대해 오히려 취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교회성장의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교회의 성장속도가 빠를수록, 그 속도만큼 전도에 대한 열정이 성도의 삶 속에서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교회성장은 건강한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며 동시에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하다. 다만,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서 마냥 기뻐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교회성장에 따르는 잠재적 도전들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그것들에 대해 대비하는 것 또한 교회성장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다가올 교회성장에 따른 후유증을 미리 방지하고 다스릴 때 교회는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